

Chapter 1. 호세아 6.

❖ 본문: 호세아 7장 1절 -16절

➤ 들어가기

오늘 살펴보는 호세아서 7장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행하며 범죄한 북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악상들을 특별히 사마리아에서부터 북이스라엘 전체로 확대하시며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우선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지도자들은 음행을 행하며 그저 자신들의 권력만을 차지하고자 온갖 거짓과 불법을 행하며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조상들의 전통과 율례를 따르기보다는 이방 민족들의 풍습과 습관을 그대로 본받고 행하면서 사회전체가 심각한 혼합주의적 상태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그저 겉으로만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저들의 죄악을 결코 잊지 않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며, 결국 북이스라엘이 애굽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1.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지도자들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1-7절)

1)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 ‘에브라임’의 죄 => 북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대표!
- ‘사마리아’의 악 => 사마리아는 수도! 곧 수도에 있는 왕족들과 정치/사회 지도자들의 악을 의미!
- 그럼 하나님 앞에 드러난 북이스라엘의 왕족들과 사회 지도자들의 악은 무엇이었나?
 - 1절 b, =>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 지어 노략질’함!
 - ①. ‘거짓을 행하며’ =>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고의로 거짓을 꾸미고, 만들어’ 사회의 물의를 일으켰다는 의미!
 - ②.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 지어 노략질함’
 - => 상습적으로 남의 집에 침입하여 남의 재산과 권리를 빼앗고, 사회적으로는 파당을 만들어 백성들의 삶을 노략질 했다는 것!
 - 이는 곧 자신들의 권력욕만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과 모략을 만들어내며, 거둬진 내란을 일으키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족들과 지도층들의 죄를 지적하신 말씀!!
 - 참고로 여로보암 2세 이후 ‘스가라’부터 ‘호세아’ 왕에 이르기까지 30년동안 북이스라엘은 6번이나 정권이 바뀌었고, 4번의 내란이 발생하였음!
=> 그로 인해서 나라의 국력은 급격히 쇠퇴하였고, 사회는 무법천지로 변하게 됨.
- 그런데 2절 주목! =>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지도자들의 죄악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 그러나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마음에 생각지 않고 살았음!!

- 여기서 참고로, 왜 사람들이 마음껏 죄를 짓고 살까?
 -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생각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곧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고, 생각지 않고 살기 때문!!
 -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항상 정직하고 경건하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자!

2) 특별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여, 반란으로 권력을 차지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3-7 절)

- 우선 4 절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다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책망!
=> ‘간음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행한 자들이란 말씀!
- 하나님은 저들을 ‘과자(빵)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궜진 _____’으로 비유하시며 저들의 죄악을 지적!(4-7 절)
 - ①. 우선 ‘달궜진 화덕’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고자 불타오르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비유!
 - ②. 빵 굽는 이들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 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
 - 이 말은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화덕이 달궜져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의 왕족들과 지도자들은 늘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그 마음이 달궜져 있다는 것!
 - ③. 그런데 5 절 보면, 드디어 ‘왕의 날’이 됨!
 - 왕의 날은 왕의 즉위식을 기념하는 날이나, 왕의 생일날을 의미!
 - 특별히 이 날은 이스라엘을 위해 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
 - 그런데! 당시 왕과 대신들은 어떠했다고 책망하셨나요?
=> 대신들은 다 술 취해 쓰러졌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며 교만에 빠져있었음!
=> 참고로 ‘오만한 자’의 히/원 ‘로체침’은 ‘겉과 속이 다른 자’, ‘남을 경멸하며 비웃는 자’, ‘거룩한 것을 무시/모독하는 자’란 의미!! (그럼 시편 1 편의 경고는?)
 - ④. 이러한 때에 6 절을 보면, 사마리아의 왕족들과 지도자들은 어떠했다고 했나?
 - 그 마음이 간교해지고! 그 마음이 뜨거운 화덕처럼 변하였고, 아침까지 더 뜨거워짐!
 - ⑤. 그로 인해 7 절보면, 결국 저들은 ‘재판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다 앞드러지게 함!’
 - > 곧 반란을 일으켜 왕을 배반하고 권력을 차지함!!
 - ⑥.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7 절 마지막!!
 - => 곧 이처럼 왕들이 온갖 거짓과 모략으로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 => 곧 국가적인 혼란과 불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국가요, 사회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
 - => 성도는 항상 나라와 민족의 불의와 혼란을 보면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함!
(예: 느헤미야)

2.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혼합주의적인 신앙과 삶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8-12 절)

1)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들과 혼합되어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8 절)

-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 친히 택하셔서 구별하신 민족! (레 20:24,26)
 - 따라서 저들은 모든 열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사명을 가진 백성! (욘 1:2, 3:1,2)
-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떠했다고 지적하시는가?
 - 이방 민족의 풍습과 사고 방식만 본받은 것이 아니라, 저들의 우상도 그대로 받아들였고, 나아가 혈통적으로도 서로 섞여 살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민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과 존재성 그 자체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는 것!!
 - 따라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을 어쩔 수없이 심판하시어 새롭게 회복시키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 => 그것이 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됨!!
 -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잊지 말자!
- 특별히 하나님은 혼합주의 상태에 빠져 사는 북이스라엘을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비유!
 - 뒤집지 않은 전병은 ‘바닥 쪽만 타고, 윗쪽은 그대로인 전병’ -> 곧, 하나님께 드러질 수 없는 쓸모 없는 전병, 버릴 수밖에 없는 전병이라는 것!
 -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성도의 삶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깨닫자!

2) 하나님은 혼합주의에 빠진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교만한 상태를 ‘백발 노인’과 ‘어리석은 비둘기’에 비유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9-12 절)

- ①. 우선 9 절, =>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켜도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해도 알지 못함!
=> 외세의 침략으로 국력이 상실되어도 깨닫지 못하고, 머리가 백발로 희어지며 늙어가는데도 죽음이 다가옴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상태, 무감각한 상태라 책망!!
=> 호 5:12 절에서 하나님은 심판은 ‘좀’처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나타날 것이라 경고!
- ②. 그러나 저들은 여전히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고 책망! (10 절)
=> 지혜로운 성도는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디에 종이 났고, 어디에 얼룩이 생겼는지 점검할 줄 알아야 함!
=>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런 점이 발견되면 그 즉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함!
- ③.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리석은 비둘기’에 비유하시며 책망! (11 절)
=> ‘어리석은 비둘기’ = ‘a senseless bird’
=> 곧 땅에 던져주는 먹이만 보면서 앞 뒤로 머리만 흔들고 쫓다가 사냥꾼의 그물에 잡히는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리석다는 지적!
=> 곧 애굽과 앗수르가 자신을 망하게 하는 적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저들을 찾고 의지하는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신 것!

- ④. 하나님은 도망치다 잡히는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결국 북이스라엘도 앗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며 도움을 청하다 하나님의 그물로 잡혀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 선포하심! (12 절)

3. 북이스라엘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13-16 절)

1)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은 반드시 패망할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13-14 절)

- 특별히 13 절 b-14 절 a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건져주고 싶으셔도, 저들은 거짓을 말하며,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책망하심!!
- 더군다나 저들의 회개는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한다’고 책망하심!!

①. 부르짖음의 자세 =>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 구원을 위한 부르짖음 곧 히/원, ‘자아크’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닥친 불행과 재난으로 인해 그저 낙심하며 슬피 우는 것, 곧 히/원, ‘알랄’에 불과하다는 것!

=> 이러한 부르짖음은 결코 믿음과 신앙의 증거가 아닌 불신앙과 절망의 표현일 뿐!!

=> 참 성도의 진실한 부르짖음은 결코 침상에서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 회개하며 부르짖는 예배자의 부르짖음!! (예: 성전에서 부르짖는 다윗)

②. (종교적) 모임의 이유 =>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 그저 곡식과 포도주 때문!! 곧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었다는 것!!

=> 오늘 우리의 슬픔과 부르짖음은 무엇 때문인지? 오늘 우리의 모임은 진정 무엇 때문인지? 정직히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자!

- 여기서 참고로 ② 구절을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해석한 학자들도 있음.

=> ‘곡식과 새 포도주를 말미암아 모이며’의 ‘모이다’는 말의 히/원, ‘구르’는 종종 ‘가다드’ 곧 ‘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됨!

=> 그런데 이 ‘가다드’ ‘베다’는 말은 주로 몸에 상처를 내는 자해행위와 연관됨!!

=> 따라서 곡식과 포도주를 위하여 슬퍼하며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들의 몸에 자해를 행하며 우상 숭배에 더 열중했다는 것! (Cheyne, Smith)

2) 하나님은 자신이 북이스라엘을 축복하셨고 강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행하며 범죄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15-16 절)

- 특별히 하나님은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 있게 하였다’고 지적하심! (15 절)
=> ‘연습시키다’의 히,원, ‘야사르’는 ‘징계하다’, ‘벌하다’, ‘교훈하다’ 등의 의미!
=>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시험과 징계와 교훈으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열강들 가운데 지금껏 강건하게 지키시고 세우셨다는 것!!
=> 그러나 저들은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고 따라감!!

=>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사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교훈과 지도하심의 은혜 때문임을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자.

-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행하며 어리석고 교만한 삶 속에 빠져 사는 북이스라엘은 결국 칼에 엮드려 질 것이고, 애굽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 선언하심! (16 절)
=> 곧 하나님을 버리고 앗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던 북이스라엘이 결국 애굽에게는 배신당하고, 앗수르에게 파멸 당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
- 특별히 애굽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자!!
=> 우선 이스라엘에게 애굽이 누구이고, 애굽에게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포하며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며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을 의지하며 저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자체가 조롱거리!!
=>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스라엘이 애굽이 도와주지 않자, 앗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는 것을 볼 때, 애굽은 물론이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음!!
-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애굽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나?

❖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묵상하게 된 내용이 있다면?

❖ 중보기도 제목 나눔